

롯데케미칼 ‘어닝쇼크’ 불구… 건설 살리기에 8000억 대여

케미칼, 투자 아닌 ‘대여’ 강조

시장선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위한 2.7조 자금조달 성공여부에 집중
증권업계 “내년 화학업계 상승세
롯데케미칼 등 NCC 업체 부각”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롯데케미칼이 신용등급 하락 위기에 처했다. 화학 업황의 하락과 함께 3분기 실적 부진까지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롯데건설 살리기’를 위해 대여금을 지원했다. 항간에는 이러한 행보에 “진행 중인 인수합병(M&A)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충분히 자금 상황을 고려한 뒤 이뤄진 계획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 지원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 롯데그룹의 롯데건설에 대한 자금 대여 지난달 20일 5000억원을 빌려줬다. 대여기간은 롯데케미칼이 내년 1월 18일 만기까지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은 6.39%이다. 이어 9월에는 롯데정밀화학이 롯데건설에 3000

억원의 운영자금을 빌려줬다. 대여기간은 내년 2월 8일까지로, 3개월 뒤에 전액 상환하는 조건에 이자율은 7.65%를 걸었다.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롯데정밀화학의 지분이 43%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총 8000억원을 빌려준 셈이다. 두 회사를 하나로 묶는 ‘연결기준 회계’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투자’가 아닌 ‘대여’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그룹사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룹사 중 관계사나 자

회사의 업황이 힘들 때 내부에서 자금 조달을 할 때 유리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롯데건설의 경우, 회계지표상 현금 유동성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내부 설명이다.

롯데케미칼 측은 “약속된 만기에 자금을 회수하고 대여 기간 동안 이자도 받을 수 있어 롯데케미칼에 손해를 입히는 대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도 최근의 계열사 차입 등은 PF 경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의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를 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지난 3분기 롯데케미칼의 영업손실은 4239억원으로 ‘어닝쇼크’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며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그룹사를 챙겨야 하는 ‘큰 형님’의 입장에 있지만 롯데케미칼만의 계획을 수행해 나가기에도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봉착했다.

시장은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를 2조7000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 성공 여부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또 ‘라인프로젝트(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조성)’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금 39억달러(5조3976억원) 조달을 위한 투자자금도 확보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내부자금과 외부조달을 통해 이를 늦지 않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강종원 롯데케미칼 CFO는 3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와 라인 프로젝트 투자를 실현하더라도 부채비율은 70%대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기업 부채가 100% 이하를 준수한 정도로 보는데 롯데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기업운용으로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기업으로 꼽힌다. 다행히 향후 화학 업황이 좋아질 것

이라는 시장의 예측으로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급등한 상태다. 증권업계에서는 내년 석유화학 업황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화학주 주가의 강세를 예측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격리 기간이 줄어들고 제로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는 모습이 업황 회복의 조짐으로 풀이된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정유와 2차전지에 투자 기회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롯데케미칼 등 NCC(나프타 분해설비) 업체가 부각될 것”이라며 “2년 만에 순수 석유화학 업체를 사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화학 대표 제품인 에틸렌 증설 규모는 내년 400~500t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1100만t) 대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중국 봉쇄 조치 완화와 우크라이나 복원 등에 힘입어 수요는 올해보다 최대 900만t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화학 업계 관계자도 “화학 사이클 주기 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빨라져 외부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예전처럼 사이클의 상승-하락 폭이 크지는 않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예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EUV 생산기업 ASML, 화성에 ‘입주’

네덜란드 ASML, 뉴캠퍼스 계획 공개
2400억 투입 2024년 12월 입주 목표

유일한 EUV 생산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이 화성 ‘뉴캠퍼스’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ASML은 15일 서울 삼성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6일 경기도 화성에 착공하는 ‘뉴 캠퍼스’를 소개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뉴 캠퍼스는 약 2400억원 규모를 투자해 동탄2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건립된다. 오는 2024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ASML 코리아 신사옥과 함께 재제조센터(LRC)와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 익스피리언스 센터 등을 포함한 새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동탄호수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의 건물로, 친환경 건축 평가 및 인증제도 ‘LEED’ 등급을 뛰어넘는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진다. 태양열 전지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오피스와 매연도 배출하지 않는다.

ASML은 LRC를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부품 수리 관련 협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산 수리 부품 비중을 10%에서 50%까지 끌어올리며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부품 조달 기간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UV와 DUV 앤지니어 육성도 이어간다.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에서 연간 수천시간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추후 차세대 장비인 하이NA 모듈까지 추가한다. 국내 대학과 연계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래 산업을 위한 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지역사

회를 위해 체험 공간으로 운영한다. 반도체 제조 공정과 ASML 기술 역사를 소개하고, 채용과 산학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했다. 매년 이어가는 사이언스 캠프를 통해 지역 아동을 위한 과학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ASML 피터 베닝크 CEO(사진)는 “여러가지로 힘써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및 화성시 포함 한국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ASML은 준비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객사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다각화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화성 New Campus를 통해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미래 성장과 최고의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것으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



LG디스플레이 IT용 하이엔드 LCD 패널이 스위스 소재 글로벌 검사·인증 기관인 SGS로부터 ‘에코 프로덕트(Eco Product)’ 인증을 획득했다.

LGD, IT용 LCD패널 ‘에코 프로덕트’ 인증

재활용률·유해물질 저감 등 높은 평가

LG디스플레이는 27인치 이하 IT용 하이엔드 LCD 패널로 SGS ‘에코프로덕트’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코프로덕트는 제품 생산부터 사용, 폐기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LG디스플레이 IT용 LCD 패널은 ▲ 재활용률 ▲ 유해물질 저감 ▲ 자원 효율성 ▲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웅 기자

‘갤워치’ 체성분 측정 정확도 전문기기 수준

수치 상관관계 최고 98% 달해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의 체성분 측정 정확도가 전문 측정기기에 상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 페닝턴 바이오메디컬 연구소와 하와이대 암센터는 최근 발행한 ‘스마트 워치의 체성분 측정 정확도’ 논문에서 ‘갤럭시 워치4’로 측정한 체성분 수치가 임상 기기 체성분 측정 표준비(DXA) 및 생체 전기저항측정(BIA) 장비로 측정한 값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논문은 최근 생물·의학 분야의 유명 학회지인 미국 임상영양저널(AJCN,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게재됐다. 두 대학은 만 23~55세의 남성 34명과 여성 41명 등 총 75명을 대상으로 갤럭시 워치4로 6개 항목의 체성분(체지방량, 체지방률, 체지방량, 골격근량, 기초대사율, 체수분량)을 측정한 뒤 이를 전문 측정기기의 측정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갤럭시 워치4와 전문 측정기기로 측정한 체성분 수치의 상관관계가 최저 93%, 최고 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정윤 기자

LG전자
獨 의료기기 박람회 참가

LG전자가 글로벌 의료 솔루션 시장에 도입력을 뽐낸다. LG전자는 14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박람회 메디카 2022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는 수술실, 엑스레이 검사실, 판독실 등 다양한 의료 공간에 최적화된 의료용 영상기기들을 방문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조성했다.

특히 ‘수술용 미니 LED 모니터 신제품(모델명: 27HQ710S)’을 처음 공개했다. 수술 환경에 최적화한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이 제품은 조명이 강한 수술실 환경을 고려해 최대 2000nit 휘도와 178° 광시야각 패널을 탑재했다.

/김재웅 기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이탈리아 농기계 제조사로부터 엔진 8000여대를 수주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된 유럽 3대 농기계 전시회인 ‘2022 에이마’에 참가, 이탈리아 골도니 키스트랙(이하 골도니)사와 8000대 규모의 엔진 공급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농기계 엔진 8000여대 수주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내년 상반기부터 5년간 골도니에서 생산되는 트랙터 등 유럽 내 농기계 장비에 탑재될 소형 디젤 G2 엔진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